

귀 쫄아 -문학-

[객용 학습 01]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최토의 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교육부문 1위 채널

- [고 3] <https://contents.premium.naver.com/jk9221/jk006445>
- [고 1~2] <https://contents.premium.naver.com/kl123/jk1234>
- [중 1~3] <https://contents.premium.naver.com/kl123/jk1234>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이상화

초토의 시 | 구상

작품 개관

일제 강점과 전쟁의 현실 속에서 자연과 아이의 이미지를 통해 상실을 인식하면서도 생명과 희망의 가능성을 모색한 작품

이상화의 (가)는 빼앗긴 국토의 현실 속에서 자연의 봄을 통해 민족적 상실감과 회복 의지를 드러낸 저항적 서정시이다. 자연의 생명력과 화자의 정서가 결합되다가 마지막에 현실 인식으로 전환되며 비극적 인식이 강조된다. 구상의 (나)는 전쟁 이후의 폐허 속에서 아이와 봄의 이미지로 남아 있는 생명력과 희망을 발견하는 작품이다. 두 작품은 모두 암담한 현실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자연과 인간의 생명성을 통해 현실 인식과 극복 의지를 드러낸다

(가)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부정적 현실 인식(국권상실) 조국의 현실 조국 광복 [국권회복에 대한 소망을 역설적으로 강조]

▶ 1연: 조국의 현실 인식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강렬한 열량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말붙은 곳으로

색채성(푸른)을 통해 긍정적이고 희망적 상황을 보여주려 함.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여성적이며 향토적 이미지(진밀감) 몽환적이며 감각적 분위기 형성

▶ 2연: 조국의 봄에 대한 감각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어

암담한 조국의 현실의 모습(의인, 돈호)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알고나!

영탄적 어조

네가 꿈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입라 말을 해 다오.

통사 구조의 반복을 사용한 부분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음(국권상실의 비애)

▶ 3연: 침묵하는 국토에 대한 답답함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국토의 자연물 친밀감의 형성

한 자욱도 섯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잠시라도 서 있지 말라. 바람의 재촉(화자의 행동의 적극성을 요구함.)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향토적 시어를 사용하여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음. 화자와 자연물의 일체감.

▶ 4연: 국토에 대한 화자의 친근함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대지의 생명력(돈호법): 식민지에도 변함없이 유지되는 국토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화자의 정서가 투영됨.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보리밭(의인) 삼을 묶은 것처럼 술이 많은 머리(풍성함) 자연과의 동화와 일체감을 보임.

▶ 5연: 국토에 대한 화자의 고마움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국토의 봄이 온 것에 대한 즐거움의 표현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의인화된 표현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도랑물이 흐르는 소리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음. 즐거움의 행동 표현

▶ 6연: 국토의 활기찬 모습

나비 제비야 깎치지 마라

돈호법 재촉하지 말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국토의 모든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애정이 담긴 표현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 7연: 국토에}

향토적 소재+우리 민족의 전통적 여인상 기름 매던(향토적) 감정의 직설적 표현 대한 깊은 애정

핵심 정리

작품 개관 (가)

- **갈래:** 자유시, 저항시
- **성격:** 현실 비판적, 저항적, 상징적
- **주제:** 국권 상실의 현실 속에서 빼앗긴 조국에 대한 상실감과 회복 의지
- **특징**
 1. '들', '봄' 등의 자연 이미지를 통해 민족 현실을 상징적으로 제시함
 2. 의인화와 감각적 이미지로 자연과 화자의 정서를 결합함
 3. 초반의 생명감과 후반의 상실감이 대비되며 정서가 전환됨
 4. 반복과 설의적 표현을 통해 현실 인식과 비극 의식을 강조함

작품 개관 (나)

- **갈래:** 자유시, 전후시
- **성격:** 현실 인식적, 성찰적, 희망 지향적
- **주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발견되는 생명력과 인간적 희망
- **특징**
 1. 폐허(잿더미)와 생명(개나리·아이)의 대비를 통해 의미를 형성함
 2. 시각적 이미지 중심으로 전후 현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3. '그림자'의 변화로 화자의 내면 정서 변화를 드러냄
 4. 절망적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구조를 지님

- **가르마:** 머리를 빗어 넘길 때 이마에서부터 머리숱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금이나 자리.
- **종다리:** 종다리과의 새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며 지저귀는 새.
- **삼단 같은 머리:** 삼을 묶은 머리처럼 술이 많은 머리
- **도랑이:** 물이 흐르도록 길게 파 놓은 좁고 얇은 물길.
- **깎치다:** 경솔하게 나서서 분수에 맞지 않게 행동하다..
- **아주까리:** 대국과의 한해살이풀로, 씨에서 기름을 짜며 잎은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지는 식물.
- **지심매:** 논밭의 김을 매던. 즉 농작물 사이에 난 잡초를 뽑거나 끊어 없애던 상태를 이르는 말.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국토에 대한 애정과 적극적 실천 의지가 드러남.

살찐 젓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모성적 이미지와 감각적 이미지를 통한 국토 애정을 드러냄(직유법)

밭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화자의 실천 정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국토에 대한 실천의지와 소망을 표현함.

▶ 8연: 국토 애정과 실천 의지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아이'는 순수성을 의미하지만 함축적 의미는 아래 행에 드러남.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내닫는 내 후아

부정적 현실에서 봄이 왔다고 마냥 좋아하는 자신에 대한 성장의식을 보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웁다. 답을 하려무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허탈한 심정. 자조적 태도를 통해 현실에 대한 허탈함을 드러냄.

▶ 9연: 현실 재인식과 자조적 태도

나는 운몽에 꽃내를 띠고

봄기운을 느끼며 조국의 봄과 일체감을 드러내려 함.

푸른 웃음 푸른 설음이 어우러진 사이로

공감각적 이미지와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를 통해 자연의 기쁨과 현실의 슬픔을 역설적으로 표현함.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화자의 정서적 불균형성을 드러냄(기쁨과 슬픔의 교차)

▶ 10연: 감정의 혼란과 정서의 불균형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시상 전환) 현실 인식 현실의 재인식 - 조국을 빼앗길 수 없다는 의지와 저항성(불안 의식으로 봄)

▶ 11연: 조국 현실에 대한 재인식과 저항 의지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

판잣집 유리막지에

전쟁의 참상(피란민촌의 현실)

아이들 얼굴이

전쟁의 주재오는 무관한 미래의 세대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장문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직유법, 해바라기 ↔ 판잣집)

▶ 1연: 전후의 폐허 속의 아이들의 천진난만함

내려쪼이던 햇살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아이들의 천진한 모습이 안쓰러워 돌아서는 화자의 모습(현재형 사용으로 생동감 부여)

나도 돌아선다.

화자를 표면에 내세워 미안함과 부끄러움, 안타까움을 행동으로 표현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르다.

'그림자'는 객관적 상관을: 참담한 현실에서 느끼는 화자의 자괴감과 비애(그림자가 '뒤'에 위치)

▶ 2연: 전쟁의 비극 인식과 화자의 괴로움

언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공간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전쟁의 참상과 비극이 드러난 공간

개나리가 망울졌다.

밝고 희망적인 이미지(생명력):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소재로 '젓더미'와 대조되는 시어.

▶ 3연: 개나리의 발견을 통한 인식 전환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주저 없는 행동으로 역동적 이미지가 드러남.

소녀의 미소엔 앞나가 빠져

전쟁과 무관한 순진무구한 희망적 이미지

죄 하나도 없다.

전쟁과 무관한 세대이면서 기성 세대의 성찰을 의도하고 있음.

▶ 4연: 소녀의 순수한 미소를 보는 화자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남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그림자'의 위치 변화(뒤 → 앞): 화자의 현실 인식이 변화되고 희망을 느끼는 부분

▶ 5연: 화자의 인식 전환과 희망을 느낌

—구상, 「초토의 시 1」



내용 탐구

(가) 핵심 포인트

'질문-대답' 형식의 수미 상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시어의 상징적 의미

- 빼앗긴 들: 국토와 국권 상실
- 봄: 광복과 국권 회복을 위한 조국

표현상 특징

- 대유법: 국토를 '들'로 표현
- 역설법: 푸른 웃음 푸른 설음
- 공감각적 이미지: 푸른 웃음
- 추상적 시어의 구체화: 푸른 설음

질문-대답의 수미 상관 효과

- 시적 의미+ 시적 안정감 형성
- 리듬감을 형성 +여운을 통한 감동

(나) 대비를 통한 의미 구조

절망적 공간

- 판잣집 유리 딱지
-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
- 울상이 된 그림자
- ▶▶ 전쟁으로 황폐화된 현실의 모습

희망의 발견

- 불타는 해바라기 같은 아이들
- 망울진 개나리
- 앞나 빠진 소녀의 미소
- ▶▶ 생명력과 순수함의 상징

대비 구조의 의미와 기능

- 시인은 판잣집과 젓더미, 해바라기와 개나리라는 시어를 통해 전쟁의 비극성과 생명의 희망을 대비시켜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프리미엄 스토리 변형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② 굽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돌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③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워라 말을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육도 셋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뻐하다.

[A]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젓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깎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④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살찐 젓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째도 모르고 끝도 없이 내닫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으며 답을 하려무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으며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렸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

판잣집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⑤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내려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①은 직접적 표현이다.
[A]는 단순한 목가적 자연 묘사가 아니라,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국토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나아가 자연이 화자의 적극적 행동을 재촉하는 역할한다. 현실에서 벗어난 도피적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 회복 의지를 북돋우는 장면이다.

[오답 피하기]

④ '속삭이며', '웃네', '머리를 감았구나' 등은 자연물을 인간처럼 표현한 의인법이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연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국토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② '한 자육도 셋지 마라'는 조약과 화자에게 넘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형식으로, 정적의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 행동을 재촉하는 기능을 한다.

③ '삼단 같은 머리', '내 머리조차 가뻐하다'는 자연의 생명력이 화자의 신체 감각과 연결되어 정서적 활력을 북돋아줌을 보여 준다.

⑤ 청각적 이미지(속삭이며), 시각적 이미지(웃네, 삼단 같은 머리)가 결합되어 생동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고양된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구상, 「초토의 시 1」

01 .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을 이상화하여 현실과 단절된 초월적 세계를 구축한다.
- ② 자연 이미지를 통해 현실을 은폐하고 개인적 정서에만 집중한다.
- ③ 역사적 현실을 배경으로 자연·생명 이미지를 매개로 정서를 형상화한다.
- ④ 서사적 사건 전개를 중심으로 현실 문제를 직접 진술한다.
- ⑤ 개인적 사랑의 감정을 사회적 문제로 확대한다.

02 (가)와 (나)의 화자 정서와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아는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고양된 정서를 보이다가 종결부에서 상실의식을 드러낸다.
- ② (나)의 화자는 폐허의 공간에서 출발하여 아이의 모습을 통해 정서적 전환을 경험한다.
- ③ 두 작품의 화자는 현실을 부정하고 내면적 환상 세계로 도피하는 태도를 보인다.
- ④ (가)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⑤ (나)는 '그림자'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내면 정서 변화를 나타낸다.

03 (가)의 주제 형상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사적 사건을 사실적으로 서술하여 현실성을 확보한다.
- ② '들'과 '봄'의 상징을 통해 민족 현실을 간접적으로 형상화한다.
- ③ 인물 간 대화를 통해 갈등을 심화한다.
- ④ 역설적 표현을 통해 존재론적 문제를 제시한다.
- ⑤ 시간의 순환 구조를 통해 운명론적 세계관을 제시한다.

04 (나)의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념적 진술을 중심으로 의미를 직접 제시한다.
- ② 극적 독백 형식을 통해 자아의 분열을 드러낸다.
- ③ 폐허와 생명의 대비를 통해 의미를 형성하는 이미지 중심 구조를 취한다.
- ④ 음성 상징의 반복을 통해 음악성을 강조한다.
- ⑤ 단일 공간의 정적 묘사로 일관한다.





05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참여 지향적 서정시에서는 현실을 직접 진술하기보다 자연물이나 구체적 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역사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이때 이미지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현실 인식의 구조를 형성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한다.

- ① (가)와 (나)는 모두 이미지를 배경적 장치로만 활용하여 현실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 ② (가)는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현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지만, (나)는 현실을 직접 고발한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이미지를 통해 현실 인식의 구조를 형성한다.
- ④ (가)는 이미지보다 관념적 진술이 중심이 되고, (나)는 서사적 사건이 중심이 된다.
- ⑤ (가)와 (나)는 자연 이미지를 통해 현실을 초월하는 태도를 보인다.

06 [보기]를 기반으로 하여 (가)와 (나)에 나타난 '시와 현실의 관계'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현실의 실제 문제를 인식하는 시에서는 현실을 단순 인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실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는 언어적 실천 작업을 지향하게 된다. 이때, 시는 현실을 비판하거나 극복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시적 화자의 지향성을 드러낸다.

- ① (가)와 (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
- ② (가)는 현실을 재구성하여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나)는 현실을 초월적 세계로 전환한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현실을 재구성하여 비판 혹은 극복 가능성을 모색한다.
- ④ (가)는 현실 반영에 머무르고, (나)는 개인적 감정 표출에 머문다.
- ⑤ (가)와 (나)는 현실과 무관한 순수 서정의 영역에 속한다.

07 (가)의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형성된 정서가 시상 전개의 마무리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
- ② 자연 이미지가 점차 소멸하면서 관념적 성찰로 전환된다.
- ③ 고양된 생명감이 종결부에서 역사적 현실 인식으로 전환된다.
- ④ 정서의 변화 없이 동일한 인식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 ⑤ 종결부에서 현실 인식이 제거되고 자연 찬미로 귀결된다.

08 (나)의 '폐허'와 '생명'의 의미 형성 방식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폐허의 이미지는 생명의 이미지를 부정하기 위한 장치이다.
- ② 생명의 이미지는 폐허의 현실과 무관한 독립적 장면이다.
- ③ 폐허와 생명의 이미지는 병치되어 현실의 비극성을 강조한다.
- ④ 폐허와 생명의 대비를 통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가능성이 형성된다.
- ⑤ 생명의 이미지는 현실 인식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09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의 이미지 기능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서정시에서 이미지는 현실을 재현하는 대상이라기보다, 현실에 대한 인식을 조직하는 매개로 작용한다. 따라서 동일한 이미지라도 그것이 놓이는 맥락에 따라 현실 비판의 장치가 되거나 현실 극복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 ① (가)와 (나)의 이미지는 현실과 무관한 정서 환기를 목적으로 제시된다.
- ② (가)의 이미지는 현실 비판의 기능을 수행하고, (나)의 이미지는 현실 인식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③ (가)와 (나)의 이미지는 모두 현실을 재현하는 데 초점이 있으며 의미 형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 ④ (가)의 이미지는 현실 상실을 자각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의 이미지는 현실 속 가능성을 인식하게 하는 방향으로 기능한다.
- ⑤ (가)와 (나)의 이미지는 모두 현실 초월적 세계를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0 [보기] 중 (가)와 (나)의 내용에 모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두 작품은 역사적 현실을 직접 진술하기보다 구체적 이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형상화한다.
- ㄴ. 두 작품은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현실 인식을 드러내지 않고 정서적 안정 상태에 머문다.
- ㄷ. 두 작품은 이미지 간 대비 또는 전환을 통해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낸다.
- ㄹ. 두 작품은 자연 또는 생명 이미지를 매개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심화한다.
- ㅁ. 두 작품은 서사적 사건 전개를 중심으로 현실 문제를 설명한다.
- ㅂ. 두 작품은 현실 속 상실을 인식하면서도 일정한 방향성의 의미를 형성한다.

- ① ㄱ, ㄷ, ㄹ ② ㄱ, ㄷ, ㄹ, ㅂ ③ ㄱ, ㄴ, ㄷ, ㄹ
- ④ ㄷ, ㄹ, ㅁ, ㅂ ⑤ ㄱ, ㄷ, ㅁ, ㅂ





1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현실의 논길을 비현실적 공간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화자의 주체적 현실 인식을 약화하고 운명론적 태도를 강화한다.
- ② ㉡: 청자를 상징한 설의적 질문을 통해 상실의 상황을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인식하며 내적 동요를 드러낸다.
- ③ ㉢: 농촌 노동의 구체적 기억을 환기하는 생활 어휘를 통해 공동체적 삶에 대한 회복 의지를 드러낸다.
- ④ ㉣: 강렬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폐허의 공간 속에서도 생명성과 순수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부각한다.
- ⑤ ㉤: 신체적 결핍을 오히려 도덕적 무구함의 표지로 제시하여 화자의 정서를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12 ㉠의 함축적 의미와 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정서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과 이상의 경계가 소멸된 공간을 통해 현실 도피적 욕망을 드러내며, 상실된 현실을 망각하려는 체념적 정서를 나타낸다.
- ②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의 억압을 초월한 자유와 해방에 대한 동경을 드러낸다.
- ③ 자연의 광활함을 강조하여 개인적 감정을 소거하고, 객관적 자연 질서 속에 자신을 맡기려는 초월적 인식을 보여 준다.
- ④ 하늘과 들의 대비를 통해 현실과 이상의 단절을 강조하고, 현실 회복이 불가능함을 인식하는 비판적 정서를 심화한다.
- ⑤ 시각적 원경을 제시하여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할 뿐, 화자의 현실 인식이나 정서 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3 (나)에서 화자의 행동 변화와 심리 변화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 외부 현실의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심리가 완화되지만, 근본적인 정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각적 대상이 달라지면서 심리가 점진적으로 침잠하고 체념적 태도로 굳어지고 있다.
- ③ 타인의 순수성을 목격한 뒤 충격을 받아 행동을 멈추며, 그 정서가 내면의 죄의식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④ 행동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변화를 통해 심리 또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 ⑤ 현실의 비극성을 외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을 과장함으로써, 심리적 불안을 일시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14 (가)의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화자와 교감하는 존재로 형상화함으로써, 국토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바람과 종다리의 움직임을 통해 정지하지 않을 것을 촉구함으로써, 자연이 화자의 적극적 행동을 재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③ 보리밭의 생동하는 모습을 미적 이미지로 제시하여, 자연의 생명력이 화자의 신체 감각과 정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자연의 평화로운 풍경을 제시하여 현실의 상실감을 망각하게 하고, 역사적 상황과 단절된 목가적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 ⑤ 청각·시각적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생동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고양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15 (가)의 '아이'와 (나)의 '소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아이'는 정지된 장면 속에서 폐허의 현실을 환기하는 존재이며, '소녀'는 역동적 움직임을 통해 화자의 정서 변화를 이끄는 존재를 의미한다.
- ② '아이'는 전쟁의 참상을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대상이며, '소녀'는 현실과 단절된 환상적 존재로 제시된다.
- ③ '아이'는 화자가 극복해야 할 현실의 부정성을 상징하고, '소녀'는 화자가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④ '아이'와 '소녀'는 모두 현실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작품 전반의 정서를 더욱 침잠시키는 기능을 한다.
- ⑤ '아이'와 '소녀'는 모두 화자의 심리 변화와는 무관한 배경적 존재로, 공간적 분위기 형성에만 기여한다.

16 (가)와 (나)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의문형을 시작으로 하고 이에 대한 답을 시의 끝부분에 제시하는 표현을 통해 구조적 완성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
- ② (나)에서는 화자의 그림자가 시상의 전개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화자의 심리가 반영되고 있어.
- ③ (가)에서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상황의 이중적 상태를 드러내며 불안정한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 ④ (나)에서는 해바라기의 불타는 소멸의 모습을 통해 기성세대의 성찰을 유도하는 화자의 의도가 담겨 있어.
- ⑤ (가)와 (나) 모두 시대 상황이 시적 정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모티프가 되고 있어.





17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 민족 공동체가 겪은 근현대사의 크고 작은 고통은 여러 시인의 현실 인식이 반영된 시작품들에 그 흔적을 남겼다. (가)는 일제 강점기에 창작된 시로, 봄날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경탄하면서도 국권 상실로 인해 상징적 의미로서의 '봄'이 도래하리라고 확신하기 어려웠던 당대 현실 인식을 담고 있다. 한편, (나)의 시인은 6·25 전쟁 직후의 국토를 불에 타 버린 땅, 즉 초토(焦土)로 인식하면서도, 그 속에 잠재된 생명력을 감지함으로써 현실 극복의 의지와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에서 자연의 생동감은 상실된 현실 속에서도 국토에 대한 애정을 견지하려는 태도의 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가)에서 '봄'의 이미지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과 더불어, 그것을 온전히 긍정하기 어려운 시대적 한계를 함께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가)의 마지막 부분은 자연의 순환 원리에 기대어 역사적 현실의 문제 또한 자생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나)에서 '아이'와 '소녀'의 이미지는 폐허 속에서도 지속되는 생명성과 순수를 통해 현실 극복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기능을 한다.
- ⑤ (나)에서 화자의 정서는 절망적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지만, 일상적 존재의 생명성을 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점차 희망의 방향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

[서술형]

18 (나)에서 시적 화자의 심리적 변화의 전환점이 되는 자연물을 찾아 한 단어로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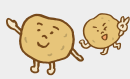
[서술형]

19 참고하여, (가)에 나타난 자연물이 화자의 현실 인식과 태도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서술하시오.

일제 강점기 시에 나타난 자연은 단순한 풍경 묘사의 대상이 아니라, 상실된 현실 속에서도 민족적 정서와 국토에 대한 애정을 환기하며, 화자가 현실을 인식하고 태도를 형성하는 매개로 기능하기도 한다. 자연과의 교감은 현실의 고통을 드러내는 동시에, 현실을 견디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정답 및 해설



01

[정답] ③
(해설)
(가)는 식민지 현실 속에서 '들'과 '봄'을 통해 상실된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나)는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아이'와 '개나리'를 통해 생명과 희망을 형상화한다. 두 작품 모두 역사적 현실을 배경으로 자연·생명 이미지를 통해 정서를 조직한다는 점에서 ③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현실을 초월하는 태도가 아니라 현실 인식이 중심이다.
② 자연 이미지는 현실 은폐가 아니라 현실을 드러내는 장치이다.
④ 서사 중심이 아니라 이미지와 정서 중심의 전개이다.
⑤ 사랑의 정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02

[정답] ③
(해설)
두 작품 모두 현실을 회피하지 않는다. (가)는 종결부에서 현실의 상실을 직접 인식하고, (나)는 폐허의 현실 속에서 희망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따라서 현실 도피적 태도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정서의 고양 → 상실 인식으로의 전환이 맞다.
② 폐허 → 아이 → 정서 변화의 구조가 나타난다.
④ 설의적 발화는 현실 문제를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⑤ '그림자'는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는 장치이다.

03

[정답] ②
(해설)
(가)는 식민지 현실을 직접 진술하지 않고 '들'과 '봄'이라는 자연 이미지를 통해 상징적으로 민족 현실을 드러낸다. 이는 상징적 형상화 방식이다.
[오답 피하기]
① 구체적 역사 사건의 서술은 없다.
③ 대화 구조가 중심이 아니다.
④ 존재론적 탐구가 핵심이 아니다.
⑤ 순환 구조가 아니라 정서 전환 구조이다

04

[정답] ③
(해설)
(나)는 '젯더미'와 '개나리', 폐허와 아이의 이미지가 대비되면서 전후 현실 속에서도 지속되는 생명성과 희망을 드러낸다. 의미는 이미지 간 대비를 통해 형성된다.
[오답 피하기]
① 관념적 진술보다 이미지 제시가 중심이다.
② 극적 독백 형식이 아니다.
④ 음성적 반복이 중심 요소가 아니다.
⑤ 공간 이동과 장면 전환이 나타난다

05

[정답] ③
(해설)
(가)는 '들'과 '봄'이라는 자연 이미지를 통해 식민지 현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나)는 폐허와 아이, 개나리 등의 이미지를 통해 전후 현실과 희망의 가능성을 형상화한다. 두 작품 모두 이미지가 현실 인식의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③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이미지는 단순 배경이 아니라 의미 형성의 핵심 요소이다.
② (나) 역시 직접 고백이 아니라 이미지 중심의 간접 제시이다.
④ 두 작품 모두 관념 진술이나 서사 사건 중심이 아니다.
⑤ 현실 초월이 아니라 현실 인식이 중심이다.

06

[정답] ③
(해설)
(가)는 자연 이미지를 통해 식민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나)는 전쟁 이후의 현실을 이미지로 재구성하여 희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두 작품 모두 현실을 재구성하며 새로운 의미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③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단순 묘사가 아니라 의미 재구성이 핵심이다.
② (나)는 현실 초월이 아니라 현실 속 희망 발견이다.
④ 두 작품 모두 현실 인식이 중심이다.
⑤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작품이다.

07

[정답] ③
(해설)
(가)는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생명감과 해방감을 드러내다가 종결부에서 '들을 빼앗겨'라는 현실 인식을 통해 앞선 정서를 재해석한다. 즉 정서의 고양 이후 현실 인식으로 전환되는 구조이다.
[오답 피하기]
① 종결부에서 정서가 변화한다.
② 자연 이미지가 소멸하지 않는다.
④ 정서의 전환이 핵심이다.
⑤ 자연 찬미로 끝나지 않는다

08

[정답] ④
(해설)
(나)는 젯더미와 같은 폐허의 이미지와 아이, 개나리의 생명 이미지를 대비시켜 전쟁 이후의 현실 속에서도 지속되는 생명성과 희망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이는 전후시의 대표적인 의미 형성 방식이다.
[오답 피하기]
① 생명의 이미지를 부정하지 않는다.
② 두 이미지는 긴밀한 의미 관계를 가진다.
③ 비극성 강조에 머무르지 않고 의미가 확장된다.
⑤ 오히려 현실 인식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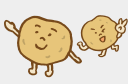
[정답] ④
(해설)
(가)의 자연 이미지는 생명감을 드러내면서도 종결부에서 '빼앗긴 현실'을 자각하게 하여 현실 비판적 인식을 강화한다. 반면 (나)의 생명 이미지는 폐허의 현실 속에서도 지속되는 인간적 가능성을 인식하게 한다. 즉 동일하게 이미지가 현실 인식의 매개가 되지만 그 방향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④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두 작품 모두 현실 인식과 긴밀히 연결된다.
② (나)의 이미지는 현실 인식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③ 이미지는 의미 형성의 핵심 장치이다.
⑤ 현실 초월이 아니라 현실 재인식이 중심이다

10

[정답] ②
(해설)
ㄱ : ○ 두 작품 모두 자연 및 생명 이미지를 통해 역사적 현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ㄴ : ○ (가)는 자연과의 교감에서 현실 상실 인식으로, (나)는 폐허 인식에서 희망의 정서로 변화한다.
ㄷ : ○ 자연·생명 이미지는 현실 인식을 심화하는 핵심 장치이다.
ㄹ : ○ (가)는 현실 비판적 의미를, (나)는 현실 속 희망의 가능성을 형성한다.
[오답 피하기]
ㄴ : × 두 작품 모두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현실 인식이 약화되지 않는다. (가)는 상실 인식이 드러나고, (나)는 현실 속 희망이 재인식된다.
ㄹ : × 두 작품은 사건 전개 중심이 아니라 이미지와 정서를 중심으로 의미가 형성된다.



정답 및 해설



11

[정답] ①
해설

- 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꿈속을 가듯'은 현실 인식을 약화하거나 운명론을 강화하는 표현이 아니라, 상실된 현실 속에서도 봄을 체험하는 화자의 내면적 긴장과 감각의 고양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상실된 공간을 다시 체험하려는 적극적 정서와 관련된다.
- 오답 피하기
- ② 설의적 질문은 화자의 동요와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 장치이다.
- ③ 구체적 생활 어휘는 추상적 민족 의식을 일상적 현실 감각으로 구체화한다.
- ④ '불타는 해바라기'는 폐허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을 상징한다.
- ⑤ '알나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는 결핍을 순수의 상징으로 전환한 표현이다

12

[정답] ②
해설

- ②는 하늘과 들이 맞닿아 보이는 지평선의 이미지를 통해 현실을 넘어선 이상적 공간, 곧 상실된 조국과 자유의 회복에 대한 동경을 함축한다. 화자는 이 공간을 통해 현실의 억압을 잠시 넘어서는 감각을 경험하며, 자연 속에서 해방과 회복의 가능성을 느끼는 정서를 드러낸다.

13

[정답] ④
해설

- 화자는 처음에 '돌아선다', '걸음을 멈춘다' 등 소극적이고 침잠된 태도를 보이다가, 소녀의 순수한 미소를 계기로 '흥그러워진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와 같은 능동적·주체적 태도로 전환된다. 이러한 행동의 변화는 단순한 외적 움직임이 아니라, 폐허 속에서도 생명성과 희망을 발견하며 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14

[정답] ④
해설

- ④는 적절하지 않다.
- [A]는 단순한 목가적 자연 묘사가 아니라,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국토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나아가 자연이 화자의 적극적 행동을 재촉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현실을 망각하는 도피적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 회복 의지를 북돋우는 장면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속삭이며', '웃네', '머리를 감았구나' 등은 자연물을 인간처럼 표현한 의인법이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연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국토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 ② '한 자욱도 세지 마라'는 자연이 화자에게 멈추지 말 것을 촉구하는 형식으로, 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도록 행동을 재촉하는 기능을 한다.
- ③ '삼단 같은 머리',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는 자연의 생명력이 화자의 신체 감각과 연결되어 정서적 활력을 부여함을 보여 준다.
- ⑤ 청각적 이미지(속삭이며), 시각적 이미지(웃네, 삼단 같은 머리)가 결합되어 생동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고양된다.

15

[정답] ①
해설

- '아이'는 판잣집 유리막지에 비친 얼굴로 제시되어 폐허가 된 현실 속에서도 생명력이 존재함을 환기하는 정지된 이미지이며, '소녀'는 언덕을 내려 달리는 역동적 모습으로 등장하여 화자의 정서를 침잠에서 흥그러움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다. 즉, 두 존재는 대비를 이루며 화자의 심리 변화 과정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 [오답 피하기]
- ② '아이'는 전쟁의 참상을 직접 고발하는 존재라기보다, 폐허 속에서도 살아 있는 생명력을 드러내는 이미지이며 '소녀' 역시 현실과 단절된 환상이 아니다.
- ③ 두 대상 모두 부정적 상징이나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성과 순수를 통해 정서 변화를 유도하는 존재이다.
- ④ 작품의 정서는 침잠으로 고정되지 않고, '소녀'를 계기로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된다.
- ⑤ 두 대상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화자의 인식과 심리 변화에 중요한 계기로 기능한다.

16

[정답] ④
(해설)

- ④는 적절하지 않다.
- (나)에서 '불타는 해바라기'는 소멸이나 파괴의 이미지를 통해 기성세대와 성찰을 유도하려는 장치가 아니라, 폐허가 된 공간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는 생명력과 순수한 존재감을 강조하는 비유이다. 이는 전쟁 이후의 절망적 현실 속에서도 생명과 희망의 가능성을 감지하는 화자의 인식과 관련된다.
- [오답 피하기]
- ① (가)는 "봄은 오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부분에서 봄조차 빼앗길 수 있다는 인식에 이르며 시 전체의 의미 구조를 형성한다.
- ② (나)에서 그림자는 처음에는 울상이 된 모습으로 제시되다가 이후 웃으며 앞장서는 모습으로 변화하며, 화자의 심리 변화가 반영된다.
- ③ (가)에는 '꽃내를 띠고', '푸른 웃음'과 같은 감각의 결합이 나타나며, 이는 희망과 상실이 공존하는 이중적 상황을 드러낸다.
- ⑤ 두 작품 모두 일제 강점기와 전쟁 직후라는 시대적 현실이 시적 정서를 형성하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

17

[정답] ③
(해설)

- ③은 적절하지 않다.
- (가)의 마지막 부분은 자연의 순환에 기대어 현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빼앗긴 현실로 인해 상징적 의미의 '봄'조차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낸다. 따라서 역사적 현실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자연의 생동감은 단순한 풍경 묘사가 아니라, 빼앗긴 현실 속에서도 국토에 대한 애정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여 준다.
- ② '봄'은 계절적 의미와 시대적 현실 인식이 결합된 상징으로 기능한다.
- ④ '아이'와 '소녀'는 초토의 현실 속에서도 지속되는 생명성과 순수를 통해 희망의 가능성을 환기한다.
- ⑤ (나)의 화자는 침잠된 정서에서 출발하지만, 일상적 생명성을 발견하면서 점차 긍정적 정서로 이동한다.





18

[정답]
개나리
(해설)

화자는 폐허의 공간을 인식하며 침잠된 정서를 보이지만,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 개나리가 망울졌다”라는 장면에서 생명성을 감지하기 시작한다. 이 ‘개나리’는 절망적 현실 속에서도 피어나는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하며, 이후 등장하는 소녀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화자의 심리적 전환을 예비하는 역할을 한다.

19

[예시 답안]

보리밭과 바람 등 자연물은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제시되어 화자의 국토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빼앗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더욱 선명하게 하고 현실을 견디려는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



[A]

00 [보기]를 참고하여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① 봄날 성에 꽃이 흐드러지게 핀 모습 온갖 생물이 바야흐로 흐드러짐. 이웃에게 경치 구경을 권함(말을 건네는 형식)

- ②
- 00 ③
- 00 ④
- 00 ⑤

00

[정답] ④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 ⑤

00

00

00

[서술형]

00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0



00

[서술형]

00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00

0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00 면담

- ①
- ②
- ③
- ④
- ⑤

00

[정답] ④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 ⑤

00 면담

- ①
- ②
- ③
- ④
- ⑤

00

[정답] ④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 ⑤

00 면담

- ①
- ②
- ③
- ④
- ⑤

00

[정답] ④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 ⑤

00 면담

- ①
- ②
- ③
- ④
- ⑤

00

[정답] ④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 ⑤

00 면담

- ①
- ②
- ③
- ④
- ⑤